

사회

광주 노래방 불 나면 대형참사

일부 유흥업소 화재위험속 피난 시설 없어

소방본부, 144곳서 209건 불법 적발

#광주시 서구 치평동 A유흥주점은 2층은 노래방, 3층은 유흥업소로 영업허가를 냈지만 2, 3층 사이에 내부 계단을 만들어 버섯이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했다. 또 단속에 대비해 3층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했다. 화재 발생시 3층의 손님들은 2층을 거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광주서부소방서는 위급 상황 시 피난이 어렵다며, 이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B단란주점은 전체 1226㎡의 영업장 면적 중 출

이 2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출을 불법으로 개조해 틈을 만들어 영업을 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5월 5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

난달 10일부터 관내 노래방·유흥주점·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2568개소에 대해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를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조사한 1133개소 중 모두 144개소에서 209건의 불법 행위 등이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3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건축·전기 등을 어긴 35개소는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106개소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비상구 폐쇄 및 통로 미확보 ▲소화기·유도등 미설치 ▲불법 개조 ▲전기안전 시설 미흡 ▲피난안내도 미비 등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업소들이 법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열처리된 소파와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최민현(35)씨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노래방과 유흥업소를 찾게 돼 위험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소한 사안이라도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곧바로 고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출입구와 비상구를 폐쇄하는 것은 화재 발생시 사상자 피해를 키우는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로"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심폐소생술 이렇게 5일 호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체험행사서 1500여명의 학생들이 '홍부 압박' 요령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딱 걸렸네

'백도'에 무단 상륙 낚시꾼·선장 검거

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접근과 상륙이 제한된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낚시꾼과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은 5일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낚시꾼 안모(67)씨와 거문도선적 2.99t급 낚시어선 선장 김모(41)씨 등 2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안씨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입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4일 오후 3시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백도에 무단 상륙해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김씨는 안씨를 자신의 배에 태워 섬에 내려준 혐의다. 백도는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 허가받은 사람 외에 수산물과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경민기자 chkim@

중국집 배달원에 400% '살인 이자'

광주경찰, 불법 사금융 128건 적발 2명 구속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모두 128건을 적발, 2명을 구속하고 18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무등록·이자제한 위반 등 불법대부업이 전체의 69.8%에 달하는 1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채권추심 26명(13.8%), 대출사기 16명(8.5%), 유사수신행위 15명(7.9%) 순이었다. 지난 24일 검거된 전모(45)씨 등 9명은 아채·생선·액세서리를 파는 판매 노점상, 중화요리식당 배달원이

나 종업원, 일용직 근로자 등 모두 29명에게 최고 409%의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냈다. 공사장에서 함박식당을 운영하던 광주시 광산구 전모(58)씨는 1년 전 사채업자 이모(57)씨에게 3억원을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두 달 뒤 자살을 선택했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김모(여·32)씨는 어머니 병원비로 고민하다 대부중개업자 모집책인 이모(47)씨로부터 대출중개업자 최모(43)씨를 소개받았다. 최씨는 김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위장

전입시킨 뒤 집주인 몰래 전세계약서를 위조, 김씨 명의로 전세자금 2100만원을 받아 수수료로 1270만원을 챙겼다. 결국 김씨가 손에 쥔 돈은 830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서민을 상대로 살인적인 고이율을 적용, 부당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여성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허위의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합법적인 지원책을 안내해주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수수료를 뜯어내는가 하면 마치 큰 이익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유혹,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이를 가토채는 행위로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아차 화염병 투척' 제보전단 배포

기아차 탁송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본보 5월 23·24일자 6면)을 수사중인 장성경찰이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제보전단을 배포해 목격자 확보에 나섰다. 5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최근 제보전단 1000매를 만들어 관내 주요 지

역에 배포하고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주요 지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해 이들이 인근 야산과 들안으로 접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나원침 (8581) 김종두



특채 불합격 소송 패소 광주시교육청 항소

광주시교육청은 "5일 광주 인화학교 전 교사 김모(35·여)씨가 장희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교사 특채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당시 4명을 뽑는 시험에서 수업 실기와 면접점수 등 4순위 안에 들었으나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윤현석기자 penfoot@kwangju.co.kr

'왜 싸움 밀러' 선상서 동료 질러

○목포해양경찰은 5일 배 안에서 싸움을 벌리던 동료 선원을 흥기로 찢은 김모(39·대구시)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에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내 작업에 대한 불만으로 동료 선원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갑판장 김모(39)씨를 흥기로 찢은 혐의다.

○해경은 범행 후 숙소에 숨어있던 강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에 묻은 혈흔 문양과 강씨의 의복과 신체에 남은 혈흔형태와의 연관성을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긴급체포. /서부취재본부 김경민기자 dss6116@

중학생 자살 부른 학생 소년원 6개월 선고

피해 학생 부모 강력 반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중학생에 대해 법원이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소년2단독 재판부는 5일 "상습공갈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15)군에 대해 6개월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송모(14)군 등 2명에 대해서는 광주지방법원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다음 기일에 보호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호처분은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장기 보호관찰, 단·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단계로 구분되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에 앞서 지난달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가 이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자 검찰이 관대한 처분이라며 항고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군 등은 지난해 말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복도 난간에서 목을 매 숨진 동급생 A(당시 14세)군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거나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학교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송진 A군 아버지는 이와 관련 "아들에게 가해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단기 소년원 송치는 솥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